

라틴아메리카 속의 한국 · 한국인

■ 멕시코시티의 한인후손회를 찾아서

강혜원 인터뷰 · 정리

레슬리와 함께 멕시코시티 한인후손회 회장 로돌포 김(Rodolfo Kim)의 집을 찾을 때는 2008년 12월 10일 저녁이었다. 멕시코시티 남쪽 소치밀코(Xochimilco)에 있는 그의 집안에 들어섰을 때 로돌포와 아내 가브리엘라 아구야노(Gabriela Aguayo Cantellano), 딸 송지 김(Song Yi Kim)은 화사한 크리스마스 장식 못지않은 웃음으로 우리를 반겨주었다. 간단한 저녁을 하면서 진행된 인터뷰는 8시 30분이 넘어서야 끝났다. 우리를 환대해준 로돌포 김의 가족과 사진을 찍어준 레슬리 비리디아나 멜로 캄포스(Lesly Viridiana Melo Campos)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강혜원: 한인후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로돌포: 1905년 에네켄 노동자로 유카탄 주의 메리다(Mérida)에 처음으로 도착한 한국인 이후, 한국인 후손들은 멕시코만 일대를

중심으로 정착했어요. 물론 메리다에 한인후손들이 가장 큰 규모로 정착했구요, 메리다 한인후손회를 비롯해서 베라크루스 주의 코아차코알코스(Coatzacoalcos), 캄페체 주의 주도 캄페체(Campeche), 바하 칼리포르니아 주의 티우아나(Tihuaná), 그리고 여기 멕시코시티의 한인후손회가 현재까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베라크루스, 오아하카(Oaxaca), 체투말(Chetumal)에도 한인후손들이 살고 있지요.

멕시코시티 한인후손회의 설립은 1930년대에 멕시코시티에 정착하신 우리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그 당시, 이민 역사가 가장 오래된 중국인들은 돌로레스 가(街)에서 당시 카페 데 치노스(Café de chinos)라는 싸구려 카페테리아를 운영하고 있었고, 주로 미국에서 이민을 온 일본인들은 앙헬레스 병원(Hospital Angeles) 근처에 모여 살고 있었어요. 제일 늦게 도착한 한인들은 정착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주저하질 않았죠. 1930년대 당시, 멕시코시티 중심가에 위치한 게레로(Guerrero), 산타마리아 라 리베아(Santa María La Ribera), 산 시몬(San Simón) 지역에 한인이 살고 있었고, 당시 우리 할아버지는 이 근처에서 향수가게를 운영하셨어요.

현재 한국에서 이민 온 많은 한국인들이 멕시코시티 소나로사(Zona Rosa)에서 식당과 식료품점, 옷가게 등을 운영하고 있어요. 소나로사는 70년대부터 형성된 동네이고 처음에는 유럽의 보헤미안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게이들과 게이 바로 넘쳐나게 되었지요. 사실, 한국교민이 소나로사에 주로 살고 있다고 하면 여기 멕시코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1930년대에는 우리 할아버지와 멕시코시티 중심가의 한인상인들을 중심으로 멕시코시티 한인후손회가 결성되었고, 1995년까지 지속적으로 활동했어요. 그러나 한인후손들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이러한 결속력과 활동이 점차 약화되었어요. 현재 대부분은 4~5세대이고, 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늦게 결혼하시는 바람에, 1970년에 태어난 저만 ‘아직은 젊은’ (웃음) 3세대에 속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되지요. 그래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한인후손회 활동에 어릴 때부터 쫓아 다녔고, 지금은 한인후손회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로돌포 김의 단란한 가족. (왼쪽에서부터 가브리엘라, 송지, 로돌포)

강혜원: 멕시코시티 한인후손회 규모와 활동은 어떠한가요?

로돌포: 멕시코시티 한인후손회는 현재 멕시코시티 내에만 3,000 가구가 등록 되어 있구요. 지속적인 모임을 갖는 건 180 가구 정도뿐입니다. 한인후손 3,000가족 중 70%는 중산층이고, 나머지는 중하류층이거나 그 이하이지요. 멕시코시티가 아주 넓기 때문에 시티 북쪽의 위성도시 사텔리테(Satelite)에 사는 분들이나, 이곳 남쪽 소치밀코(Xochimilco)에 사는 저 같은 사람들이 함께 모으려면 각자 집에서 왕복 5시간을 잡아야 해요. 그래서 멕시코 시티에 등록된 한인후손들 모두가 공식적으로 자주 만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또한 한인후손회 이름으로 행사를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연락을 아무리 드려도 어떨 때는 결국 3~4명만 참여하는데, 이러한 무관심도 한인회 활동이 저조한 이유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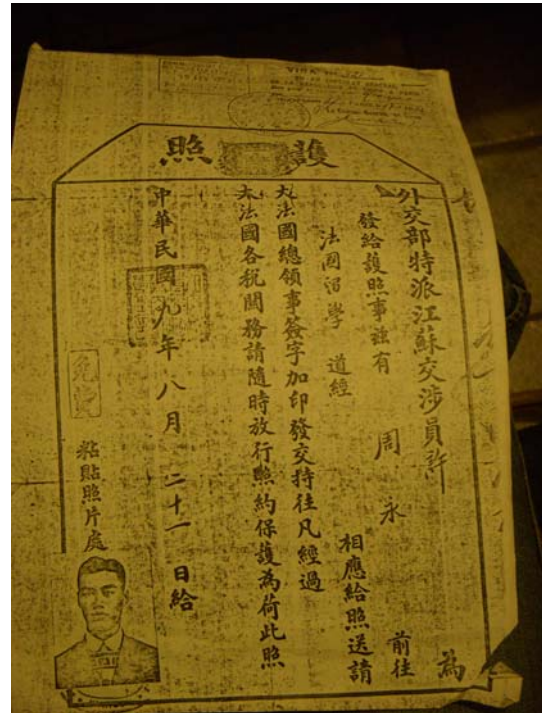
멕시코시티 근처에 있는 멕시코 주(Estado de México)의 찰코(Chalco)와 이달고 주(Estado de Hidalgo)의 툴란싱고(Tulancingo)등지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부유한 한국인들 중심으로 5월 5일 축제가 있어요. 하지만 멕시코시티나 멕시코만 근처의 다른 도시에 사는 한인후손들이 축제에 참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지요. 한인후손회는 우리가 전부가 아니고, 다른 조직, 단체들도 있습니다. 할 수 만 있다면 모두 모이는 게 좋겠지만 지리적 거리 때문에 늘 그럴 수는 없지요.

실제로 멕시코시티도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시티 내에서도 자주 모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공식행사로 만나는 것보다, 서로 연락이 끊기지 않게 하는 차원에서 친목 모임을 자주 갖는 편입니다. 그래서 멕시코시티 한인후손회를 북부지부와 남부지부로 나누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물리적 거리를 극복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준비 중에 있고요. 의사소통은 홈페이지를 통해서하고, 북부지부 축구팀, 남부지구팀으로 친선축구도 할 수 있겠지요.

2009년 1월안으로 홈페이지 구축이 완료될 것 같아요. 홈페이지는 물론 스페인어로 운영할 겁니다. 한국말로 홈페이지 번역을 해줄 사람도 찾고 있어요. 우리 한인후손회 홈페이지가 만들어진다면 스페인어를 배우기 위해 멕시코로 어학연수 오는 한국한생들에게도, 한국을 알고자하는 한인후손들에게도 모두 유익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사업을 하는 많은 한인후손들도 홈페이지 광고를 통해 자신의 회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단지 수익 추구가 아닌 한인후손들을 위한 특별한 할인 가격을 내놓지 않을까요.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관이나 강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한국문화관련 정보도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멕시코 내 한국연예인 팬클럽 정보

도 나눌 수 있겠지요.

현재 한인후손회의 유일한 공식 활동은 추석과 같은 한국 명절에 맞춰 한인후손학생들의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비록 모든 명절을 다 챙기지는 못하고 있지만요. 또한 축구팀을 조직해서 현재 친목축구를 하고 있고, 야구팀도 조직할 계획입니다. 스포츠 활동을 통해 한인후손들의 모임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특히 태권도 교육은 한국정체성을 자각하는 좋은 계기가 되지요. 멕시코는 세계 3위의 태권도 강국이라서, 태권도의 인지도와 위상이 높은 편이고, 많은 한인 후손들이 태권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로돌포 김의 외할아버지 황보씨의 중국 상하이 입국 비자. 앞면에 외할아버지의 증명사진을 볼 수 있다.

강혜원: 멕시코시티 한인후손회의 역사와 로돌포 씨의 가족사를 따로 떼어놓을 수 없을 듯하네요. 외가와 친가 가족사에 대해 더 말씀 좀 해주세요.

로돌포: 1895년에 태어나신 외할아버지는 일제 식민통치하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당시 18살로 정치학을 공부하던 외할아버지는 일본 장교가 학교 여선생님을 강간한 사실을 알고는 일본 장교를 죽였어요. 아마 1913년경일 것이에요. 당시 결혼해서 5살 어린 아들이 있었지만, 일본 순경의 추적을 피해 가족을 남겨두고 한국을 떠나야 했어요. 일본 순경은 중국 상하이로, 유럽으로

계속 추적을 해왔고, 결국 할아버지는 포르투갈까지 가셨고 거기서 미국행 배에 몸을 실었어요. 뉴욕에서 몇 년 일을 한 뒤에 할아버지는 멕시코로 넘어왔습니다.

케레타로(Queretaro) 농장에서 일하던 할아버지는 그곳에서 스페인계 후손 멕시코 여인을 만나 다시 결혼을 하셨어요. 고등교육을 받고 자랐으나 육체노동자로 험하게 사셔야만 했던 외할아버지는 조국이 해방된 뒤에 남과 북으로 분단된 사실에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분단으로 인해 당시 남겨두고 온 가족과 친척 대부분은 평양과 38선 북쪽 경계에 남게 되었고, 남겨진 아내와 아들만 38선 이남에 머물게 되었죠. 할아버지는 질곡의 역사와 현실의 무게로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멕시코인이 되기는 싫으셨고, 그렇다고 한국으로도 돌아갈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외할아버지는 술을 많이 드시고는 결국 끝 모를 회한과 슬픔 속에 1959년에 돌아가셨어요. 당시 어머니는 11살이었어요.

외할아버지 성은 황보예요. 어머니는 마르타 황보(Marta Whangpo). 예순 살이고, 현재 산 루이스 포토시(San Luis Potosi)에서 살고 계세요. 제 아버지는 타마울리파스(Tamaulipas) 주의 탐피코(Tampico)출생이세요. 아버지는 3년 전에 82세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와 아버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요. 아버지 성명은 저와 똑같은 로돌포 김이고, 할아버지는 김수원, 할머니는 마리아 김이에요. 할머니도 한국 이름이 있었는데, 마리아로 바꾸셔서 한국 이름이 원래 뭐였는지 이제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어머니는 어릴 적에 늘 왜 자기 성이 황보인지 궁금해 하셨어요. 여기 한인 후손들은 원치 않게 이상한 성씨를 갖게 된 경우가 많아요. 멕시코로 이민 온 20세기 초, 멕시코사람들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 이민

국에 등록할 때, 짧은 스페인어로 자신을 소개했다가 엉뚱한 성씨를 갖게 되는 경우가 잦았어요. 예를 들어 “소이 코레아나(Soy coreana,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면 ‘코레아나’가 무슨 뜻인지 몰랐던 관리는 코로나(Corona)라고 성을 등록해 버렸어요. 또는 ‘이순자’라고 했다가 이름 전체가 인순사(Inzunza)라는 성이 돼버리기도 했지요. 지금은 돌아가신 큰 외삼촌도 황보라는 성을 스페인어 발음대로 ‘후안 포’(Juan Po)로 고쳐서 제 사촌들은 모두 성이 후안 포예요. 이런 식으로 원치 않게 혹은 원해서 한국 이름과 한국 성씨를 잃어버린 한인후손 가족들이 많아요.

제 이름은, 아버지 이름을 따라 로돌포 김 황보[멕시코를 비롯한 스페인어권에서는 이름 뒤에 아버지 성과 어머니 성을 함께 쓴다]예요. 하지만 제 딸 이름은 성스러운 땅(聖地)이라는 뜻을 지닌 송지(Song Yi)예요. 김송지.[멕시코인들에게 우리말 모음 ‘ㄴ’은 발음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성지’가 ‘송지’로 들렸을 것으로 여겨진다.]



로돌포 김의 아버지와 어머니 젊은 시절 모습



로돌포 씨의 딸 송지의 돌 사진. 멕시코에서 한복을 입고 찍었다.

강혜원: 로돌포 씨는 한국인 후손으로서의 정체성이 남달라 보여요.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의 한인후손 세대들은 이러한 정체성이 열어지고 있잖아요. 로돌포 씨는 한국인 후손이라는 강한 자의식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로돌포: 그건 제 어머니가 노력하신 집안 분위기와 가정교육에 있다고 봅니다. 어머니는 한국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남다르셨어요. 어릴 적에 아버지를 여의셔서 그런지 어머니는 언제나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알고 싶어하셨습니다. 자신의 성이 황보인 것, 자신의 동양적 생김새, 이 두 가지는 멕시코 어딜 가나 튀는 것이었거든요. 어느 날 어머니는 외할아버지의 사진 속에서 당신의 이복형제사진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방팔방으로 한국에 있다는 배다른 오빠를 찾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결국 연락처를 알게 되었고, 남한에 살고 계신지도 알아 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가서 새로운 외삼촌과 외사촌들을 만나보았고 다음 해에 어머니도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제 한국어가 영 짱이라서 아무도 못 알아 듣더군요(웃음). 다행히 사촌들이 영어를 할 줄 알아서 서로 영어로 의사소통을 했어요. 이제 남한의 외삼촌은 고인이 되셨기에 남한의 사촌들과 연락을 자주하는 것이 좀 힘들어졌습니다.

어쨌든, 어머니의 한국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만은 대단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셨지만 한국어를 스페인어의 70% 정도로, 꽤 유창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우리들에게 한국말로 말씀하시려고 늘 노력하셨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한국음식에 대한 사랑은 다른 한인후손 가정과 매우 다른 점이었습니다. 어머

나는 집에서 하루 세끼나, 혹은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최소한 하루 한 끼라도 한국음식을 해주셨어요. 어머니는 시간이 오래 걸려도 직접 고추장, 된장을 담그셨어요. 김치, 깍두기, 불고기, 만두 등을 손수 해주셨어요. 집에서 김치가 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강혜원: 와, 대단한 걸요! 어떻게 재료들을 구하실 수 있었나요?

로돌포: 당시에 중국인이 운영하는 식료품점에서 중국배추와 무를 구할 수 있었어요. 마늘, 생강, 고추는 여기 멕시코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어요. 1990년대 즈음해서, 한국정(Pabellón coreano)라는 한국 식당이 소나로사에 나타나면서, 소나로사를 중심으로 한인 식료품점과 한식당이 많이 생겨났어요. 비로소 한국 음식재료들을 구할 수 있었지요. 사실 그 전까지는 한국음식 모양새는 나지 않았지만, 우리 집에서는 퓨전 한국음식을 먹었어요. 우스운 일화가 있는데, 어머니와 우리는 국수를 참 좋아했어요. 종종 뜨끈한 국물에 말아먹는 국수를 해 먹었는데, 그때만 해도 국수면발을 파는 한국 식료품점이 없었어요. 그래서 스파게티 면을 삶아서 국수장국에 말아 먹었지요(웃음). 재료를 구하기 어려워 자주 멕시코 퓨전식 한국음식을 해먹었어요. 스파게티 국수 외에도, 상추 대신 토르티야에 한국 돼지갈비나 불고기를 얹고 매운 초록색 살사(salsa verde)를 뿌려 먹기도 했죠. 맛은 일품이었어요.

한번은 어머니께서 일주일 내내 한국음식만 해주신 적도 있는데, 이때 아버지는 매 세끼를 한국음식을 먹자 질리셨죠. 그래서 프리홀(frijol)과 포요 콘 몰레(pollo con mole)를 찾으셨지요. 아

버지처럼, 저도 멕시코 음식 아주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일주일 동안 한국음식을 구경 못 하거나 김치 한 조각이라도 못 먹으면 뭔가 허전해요. 꼭 김치를 먹어야 하지요. 이제는 제가 집에서 직접 한국음식을 요리해요. 우리 가족은 한국음식을 잘 먹어요. 어린 송지도 김치 물에 헹궈주면 잘 먹어요. 젓가락질도 잘합니다.



젓가락으로 과자를 집어 들고 자랑스러워하는 송지.

강혜원: 문화의 여러 양상 중에서 가장 끈질기게 살아남는 것이 입맛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점에서 로돌포씨의 가족은 매우 자연스럽게 효과적으로 한국 문화를 이어가고 계시는 군요. 하지만 멕시코 입맛을 지닌 가브리엘라 씨에게는 한국음식이 늘 입에 맞을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데요. 같이 사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가브리엘라: 저는 한국음식이 잘 받아요. 처음부터 잘 먹은 것은 아니지만 차츰차츰 많이 먹게 되었고 이제는 즐겨 먹고 있지요. 친정어머니도 이제는 김밥을 말 줄 아세요(웃음). 그런데 아버지는 여전히 멕시코 음식을 고수하세요. 그래서 가족 식사로 한식을 먹게 되면, 맛있게 불고기를 다 드시고서도 꼭 ‘프리홀’을 찾으세요. 신랑이 김치를 찾듯이.

로돌포: 제 입맛은 매우 보수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고기를 먹더

라고 고추장, 마늘, 김치를 늘 같이 먹어야 되고, 갈비탕 같은 탕 종류를 먹을 때는 아주 뜨겁게 해서 먹지요. 멕시코에서 먹듯이 미지근하게 레몬즙이랑 양파 뿌리면 도저히 못 먹겠어요. 그런 갈비탕은 남 주지요(웃음). 음식문화와 가정교육에 대해 좀 더 첨언하자면, 식탁에서 어머니는 한국적 가치와 전통을 만들어 오셨어요. 제가 어릴 적에 집에서는 멕시코와 달리 6시에 아침, 12시 점심, 6시 저녁식사를 했고, 식사도중에는 음악도, 아무 말도 없이 조용하게 식사를 해야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밥 시중을 하실 땐, 항상 아버지와 만형인 저를 먼저 챙기셨어요. 이런 분위기는 가족 문제를 해결할 때도 말이야 하자고 하면 이유 불문하고 따르는 전통으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말이인 제가 더 많이 배워야 하고, 동생들을 챙겨야 하고 더 많이 고생해야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죠. 언제나 무거운 책임감이 뒤따랐어요. 그런데 이제 동생들이 이런 전통을 그만 두자고, 우리는 멕시코에 살고 있으니깐 좀 더 자유롭게 살자고 주장하고 있지요.

레슬리: 이런 점에서 한국적 올곧은 삶의 자세와 엄격함이 멕시코적인 여유와 느슨함과 충돌할 텐데요, 이런 문화적 충격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로돌포: 사실 저는 사는 동안 여유부릴 시간이 없었어요. 말로서 강한 책임감을 갖고 자라야했지요. 또한 아버지는 어린 제가 숙제를 끝내도 영어와 한국어 공부를 끝내기 전까지는 나가서 놀지 못하게 하셨어요. 부모님의 한국적 가치관교육 속에서, 숨막히게 똑바르게만 살아온 저는 어느 날 결국 이렇게 살수 없다고 느꼈어요. 외부 세상의 삶의 방식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깨달았죠. 저는 여기 멕시코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멕시코의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긴 하되, 개인적 가치는 유지하는 것으로 절충을

했어요. 예를 들어, 금요일은 즐겁게 마시고 놀지요. 그런데 여기 친구들은 집에 안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반드시 외박은 피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가장이 집에 들어가야 가족들이 걱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요. 이러한 사소한 부분에서 제 삶의 가치를 엄격히 고수하고 있어요. 멕시코 문화는 즐기는 문화이고, 여유를 부리고 또 마초(macho)적인 문화이지요.

강혜원: 한국의 문화도 마초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로돌포: 그렇죠, 그러나 멕시코의 마초문화는 한국의 마초문화와 달라요. 한국의 마초문화는 공격적이지 않아요. 무슨 뜻이냐면, 한국 마초는 집 안에서 중요한 위치가 있어요, 내가 마시고 싶다고 하면 요구하고 마셔요. 그러나 그에 걸맞는 책임을 완수해야 하고, 실제로 완수하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거지요. 남편의 위치, 아버지로서의 위치에 걸맞는 임무를 완수해요.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아내에게 기둥이 되고, 자식을 교육하고... 그래서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멕시코 마초는 남자라고 터무니없는 말을 떠들어 대고, 자기가 마시고 싶다면 어디에서든,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안하고 마셔요. 그리고 외박을 하든, 누구랑 아침에 같이 일어났는지 신경 안 쓰죠. 그래서 많은 여자들과 관계하고, 양다리를 많이 걸치죠. 아내에게 가져다 줄 돈을 어디에 쓰는지 몰라요. 아내의 존재는 상관 안하죠. 그래서 한국 마초는 같은 마초라고 불려도 초점이 다른 거예요(웃음).

강혜원: 가브리엘라씨, 남편의 설명에 대해 어떻게 보세요?

로돌포: (웃음) 그럼 전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가브리엘라: 당신 일부러 자리 피하는 거죠(모두 웃음꽃). 멕시코에서는 요즘 여자들이라고 해도 여전히 고분고분한 면이 조금은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순종적인 건 아니에요, 로돌포도 마초적이지 않은 것처럼요. 우리 둘의 이러한 조화는 두 문화의 좋은 점만을 취하는데서 나오는 게 아닐까요. 저도 처녀 시절엔 매우 독립적이고, 일하는 여성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결혼을 했고,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키우고 있기에 처녀적의 모습과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삶이 바뀌었잖아요. 전에는 회사 상사의 일정관리에 신경써야했다면, 이제는 아기를 보살피고, 빨래, 식사준비 등 집안 살림에 신경을 쓰고 있어요. 저도 신랑 생각에 공감해요. 그래서 집안에서 제 위치에 신경을 쓰고 거기에 충실하는 거지요.

강혜원: 아, 로돌포씨가 돌아오셨는데, 가브리엘라씨,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한인 후손과 결혼을 하기까지 힘들지 않으셨나요? 집안의 반대는 없었지요?

가브리엘라: 전혀요!!

로돌포: 아내 두들겨 패지 않는 사람을 원했고 그래서 나랑 결혼한 걸 거예요. 난 마초가 아니거든요(웃음).

가브리엘라: 저는 국적은 정말 상관 안했어요, 한국인이든, 헝가리인, 러시아인이든… 신랑의 가족사가 제게는 아주 인상적이었어

요. 또 제가 비록 한국인은 아니지만, 한국문화, 한국음식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로돌포: 그중에 특히 신랑을 아주 좋아하지요(웃음).

가브리엘라: 신랑이 말한 것처럼, 다른 한인 후손들과는 다르게 한국적 사고방식, 특히 강한 책임감이 삶의 방식 곳곳에 배어있었어요. 언제나 올바르게 행동했고, 농담 잘하고, 장난기 많지만 언제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외모에서 오는 차이뿐만 아니라, 문화, 인격적 차이도 남다르게 느껴졌죠. 부모님의 반대는 신혼 초에 있었어요.

로돌포: 처가집 어른들이 처음엔 저를 싫어하셨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웬 중국놈(?)이 나타나서, 게다가 10살짜리 딸이 있고 이혼까지 했다는 남자에게 누가 외동딸을 주고 싫어하겠어요. 독실한 과달루페 회 카톨릭 신자인 장인, 장모님은 제가 교회에서 결혼한 후에 이혼을 한 것을 특히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그래도 두 성인 남녀가 좋아하는 것을 누가 막겠습니까. 결국 두 분을 설득했고, 처갓집에서 딸을 훔쳐오다시피 했지요. 하하. 제가 멕시코인이 아니라 한국인 후손이라는 점은 장인, 장모님에게 차별보다는 호기심을 자아내게 했어요. “이런, 신발을 벗고 다니는 놈이 있나!” 한국 사람들은 집안에서 맨발로 다니지만, 여기 멕시코는 그렇지 않잖아요. 게다가 바닥이 차가우니까 그렇게 지낼 수도 없고요. 집에서는 신을 벗고 있는 게 편하고 익숙했지만, 어른들 앞에서는 꼭 참았죠. 맨발로 다니는 놈에게 당신들의 딸이 계급적으로 어울리지도 않고 설사 같이 살아도 어떤 삶을 살아갈지 뻔하다고 여기셨거든요. 그렇지만 결국엔 그것이 한국문화에 대한 무지에

서 온 편견이었고, 제가 한국 마초이긴 해도 나름대로 괜찮은 녀석이구나, 열심히 일하는 마초라는 것을 인정해 주셨지요. 게다가 멕시코 남자들과는 달리 매일매일 깨끗이 씻는 마초라는 것두요(웃음).

강혜원: 로돌포씨는 멕시코에서 인종적 편견이 있다고 보세요? 한인후손으로서 멕시코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로돌포: 멕시코에 인종 편견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요. 다만 한인후손으로서 제가 어릴 적, 대학교 때까지 겪었던 친구들의 따돌림과 조롱은 인종주의라기보다는 한국에 대한 멕시코인들의 무지에서 기인한다고 봐요.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멕시코에서는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거의 없었고, 다들 저를 중국인으로 여겼지요. 제가 아무리 스페인어를 잘하고 여기서 태어나고 했어도, 한국으로부터 물려받은 외모와 성씨는 평생 저를 이곳에서 다른 존재로 보게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멕시코사람과는 다르죠. 한인후손으로서 남들과는 다른 제 현실은 저를 더 바르고 나은 사람으로 살도록 이끌어 왔어요. 다르기 때문에 늘 될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남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지, 못한 사람이 되면 더 욕을 먹게 된다는 심리 때문이겠지요. 아버지는 늘 제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똑바르지 못하고 어리석은 한국인이 된다면 그건 여기서 중국 개만도 못한 놈이 되는 거야”라구요. 한인후손회 모임에 가면 저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사람인 줄 알았는데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하는 이들을 보면서, 로돌포 김처럼 호르헤 박 이름을 보면서 입장의 동일함을 느끼지요. 외모적으로 우리는 멕시코인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국사람도 아니지요.



필자와 인터뷰하는 로돌포 김

전에 한국 회사에서 일할 적에, 여기서 태어나 자랐고, 한국말을 못한다는 이유로 한국인 집단에 속할 수가 없었어요. 한국에서 멕시코 현지로 출장 온 한국인들은 저를 멕시코인으로 취급했어요. 같은 회사에 있는 멕시코인들은 저를 한국인으로 따돌렸어요. 저는 양쪽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이방인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때 맘고생 많이 했어요.

강혜원: 로돌포 씨가 보기에 한국인들은 어떠한가요. 폐쇄적인가요, 아니면 개방적인가요?

로돌포: 많이 닫혀 있지요. 우리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보내는 차별과 거리 때문에 맘고생을 해본 많은 한인 후손들이 한국인 사회와 접촉하기를 꺼려하고 있어요. 이런 섭섭한 감정 때문에 한국에 대한 조국애라든가 정체성을 갖기가 어렵죠. 특히 한인 후손들은 한국기업과 일할 때는 직장 내 조직에서 멕시코인보다는 보수가 많지만, 한국인보다는 적은 보수를 받습니다. 승진과 보수에 있어서 뚜렷한 한계가 있지요. 저도 대리직함을 달고 일했는데, 한국인 상사보다 일을 더 많이 하든 오래 근무하든 상관 없이 이러한 차별을 받았지요. 이러한 상황은 멕시코 내 한국기업에서 일하는 우리 한인 후손들에게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어요. 일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한국인 집단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우리는 멕시코인일 뿐이죠. 우리 한인 후손들보다는 오히려 한국 연예인 팬클럽 회원으로 활동하는 멕시코 사람들을 열린 자세로, 더 따뜻하게 맞아주는 상황이에요. 물론 모든 한국 사람들과 모든 한인 후손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히 한인 후손들에게 이러한 섭섭한 감정이 자리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강혜원: 멕시코 내 한인 후손들이 겪는 이러한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로돌포: 첫째로, 한인후손들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고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필요해요. 우리 한인후손회는 한국에 돈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존재를 알아주길 바랄뿐이에요. 여기 멕시코 주재 한국대사관은 우리 한인 후손들의 실정을 충분히 자각하고, 한인후손회 활동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있어요. 한국

대사관측은 우리가 한국인이면서 동시에 멕시코인이라는 이중정체성을 잘 이해해 주고 있죠. 그러나 한국정부 및 한국에서 우리와 접촉하는 관계자들은 이러한 기본적 이해가 결핍되어 있어요. 왜냐면 이들은 여기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과 라틴아메리카를 몰라요. 그리고 한국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도 라틴아메리카에 사는 한국인들에게만 쏠려 있어요. 이미 피와 문화가 섞인 우리 한인 후손들은 관심 밖이죠.

한국학교 설립 건만해도, 한국정부는 한국인만을 위한 한국학교를 세우길 원하죠. 저도 멕시코 내 한국학교 설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어요. 다만, 한국 학교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멕시코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인 후손들에게도 열려있어야 한다고 봐요. 여기에 있는 일본학교와 프랑스학교처럼 멕시코로 이주한 자국민은 물론, 멕시코에서 태어난 자국민 후손들을 위한 반도 생겨야 한다고 봐요. 더 나아가 멕시코인들에게도 입학을 허락하는 한국학교였으면 좋겠어요.

둘째, 한국문화, 언어 관련 기관의 설립과 확충이 절실해요. 요즘 한인 후손 세대들은 한국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지만, 어디서 이러한 관심과 지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정보 공유가 부족해요. 한국어 강의는 주로 사적으로 이루어지고, 비싸지요. 몇몇 한인 교회에서 한국어 무료 강의를 하는데 일하는 한인후손들 보다는 멕시코 학생들이 더 많고 이들이 말도 더 잘하는 상황이에요. 대사관에서 주최하는 문화 행사나, 한국 음악이나 무용 공연 등이 가끔 있지만, 더 저렴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가까이 할 수 있는 문화적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런 문화 기관과 풍성한 프로그램이 활성화된다면 한인 후손만이 아닌 멕시코인들에게도 한국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불씨가 될 거예요.

지난 1월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인후손회에서 제게 전화를 했어요. 몇몇 한인 후손들이 여기 멕시코에서 한국전통혼례를 올리고 싶어했거든요. 멕시코시티 내 ‘아름다운교회’에서 전통혼례를 지원하고 있어서 그때 이들을 연결시켜주었어요. 한국 문화와 전통, 언어에 대한 관심을 자극하고 실천을 가능하게 해 줄 수 있는 많은 문화공간이 필요해요. 이러한 차원에서, 멕시코 한인후손회는 6개월에서 1년 안에 커다란 집을 마련해서 이러한 관심을 자극하고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공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째, 한국의 대학들과 여기 멕시코 한인 후손학생들과의 교류가 많아져야 한다고 봐요. 현재 한인후손회와 인천대학교 사이에 기계, 용접, 설비공학과 등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어요. 매년 10명 정도가 한국으로 가고 있고, 이번이 5차례 교류이죠. 젊은 한인후손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더 많아 져야 합니다. 또한 이미 나이가 든 한인후손들도 한국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유익하고 실용적인 차원의 상호교류가 필요하다고 봐요.

강혜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주신 로돌포 씨와 가브리엘라 씨에게 감사드립니다.□